

12/13(월) 욱기 묵상 28

욱기 19: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욱기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욱기 19장의 말씀은 헨델의 메시아 중 3부 첫 곡으로도 기록되었고 찬송가에도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행선

욱은 빌닷의 말을 듣고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학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2-3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열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계속되고,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욱은 친구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처럼 지혜의 교훈이 아니라 학대라고 지적합니다. 욱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4-6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깨닫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욱의 친구들처럼 단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교육 학자인 브루스 월킨스 박사는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제안을 합니다. 1) 학생들을 사랑하라. 2)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염두해 두고 내용을 전달하라. 3) 지루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라. 4)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라. 5) 학생들의 태도와 관심 그리고 행동에 끊임없이 주의하라. 6)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라. 7)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라. 월킨스 박사의 방법을 살펴보면 이 방법들 중에서 절반은 말을 전달하는 자의 확신과 태도가 중요하지만 절반은 그의 말을 듣는 상대방의 필요를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욱의 친구들은 두 영역에 있어서 모두 부족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욱기 18장의 빌닷의 말은 논리적으로도 흑백논리에 빠져 있었고, 욱의 자식들을 악인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볼 때 욱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욱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평행성을 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욱의 호소

욱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기서 욱이 당하는 폭력은 언어적 폭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욱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욱은 자신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막으시고 공격까지 하신다고 말합니다(8-10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떤 학자(Balentine)는 욱기 19:7-12절의 담화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 당한 상황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애가 3장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다, 막히다, 어두움, 길”이라는 표현이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든지 또는 악인이든지) 다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욥도 군대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11-12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와서 길을 돌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적군처럼 보입니다. 즉 욥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운명을 맞아야 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의 고난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다시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욥의 생애도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품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욥기 19장 후반부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욥은 이생의 죽음 너머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줄 뿐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도:**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2021년 11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내전 기간 동안 약 40만 명이 기근에 빠졌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북부지역에서는 약 25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속히 종식되어 국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사회가 속히 안정되며,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하자.
-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영상미디어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캄보디아 김기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